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국립광주과학관 2024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 참여 시민 200여 명 친환경 전기차 만들기 체험

- 10월 12일(토)부터 이틀간 '가족이 함께하는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 부스에 시민 약 200명 참여... "친환경 에너지 콘텐츠 개발로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할 것"



▲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가 지난 10월 12일과 1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2024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운영한 '가족이 함께하는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 부스 전경. 이날 GIST 체험 부스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난 주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2024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 가을풍경 속 미래과학 만들기'에 참가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10월 12일(토)과 13일(일), 국립광주과학관이 주최한 이번 '2024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올해는 '가을풍경 속 미래과학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다.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소장 이상한)의 '가족이 함께하는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 부스를 방문한 약 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들은 에너지 저장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실생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친환경 전기자동차 제작 과정을 체험한 한 시민은 "전기자동차의 구동 원리와 역할을 직접 경험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가 운영한 '가족이 함께하는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 부스 전경.

이상한 소장은 "GIST는 **실생활과 연관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며**,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콘텐츠 개발로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성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기술뿐만 아니라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핵심 에너지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그리드 기술까지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유기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며,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앨런 J. 히거(Alan Jay Heeger) 교수와 게르하르트 에르트(Gerhard Ertl) 교수와 공동으로 각각 '히거신소재연구센터'와 'Ertl 촉매연구센터'를 설립해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와 협력하여 국경을 초월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GIST는 국립광주과학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GIST 과학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교육과 우수 연구 성과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지역사회의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